

주제회의
장애

토 론 문

김목원
[엠코 코리아 사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목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구 삼각동에 있는 우리빌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은 광주광역시에서 발달장애인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2년간 지원주택과 주거 코치를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2년 후 완전 자립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엠코코리아라는 회사에 5달째 다니고 있고, 그곳에서 반도체 쓰레기를 수거하여 배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엠코코리아에서 일하기 전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보훈병원, 엄마요양병원 그리고 동행요양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 보조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직업 재활 훈련 과정을 통해 여러 곳에서 현장 적응훈련을 했고, 지원고용을 통해서 작년 1년 동안 세스코라는 회사에서 약품 자재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올해 초 세스코와의 계약이 만료된 후 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고용 서비스를 통해 현재의 엠코코리아에 연결되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을 때는 기분도 안 좋고 삶에 활력도 없었는데, 일을 다시 하게 되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수입도 생겨서 부모로부터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과 자조 모임을 함께 하면서 여가생활도 즐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으로서 현재 회사에서 일하면서 몇 가지 힘든 점도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라인을 돌면서 반도체 쓰레기를 수거하여 비닐에 옮겨 담아 밖으로 배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쓰레기의 무게가 꽤 많이 나가서 옮기는 일이 조금 힘이 듭니다.

어떤 때는 직원분들이 저에게 반복적인 지시를 할 때 가끔씩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다 이해했고 혼자서 할 수 있는데,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건가?’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이겠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일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직업재활훈련, 지원고용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도 일한 만큼 적절한 보수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